

정부예산 확보 '총력전'

익산시 정현율 시장, 국회·정부청사 등 총력 행보

익산시가 역대 최대 규모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정현율 시장은 지난 5일과 6일에 이어 8일 국회와 정부청사 대전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찾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 행보를 펼쳤다.

정 시장은 지역 출신 국회의원은 더 불어민주당 김수홍(익산갑)·한병도(익산을) 의원을 만나 국회다게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또 조용복 국회의무차장을 만나 시가 국회다게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정 시장은 이번 행보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국립 금강 청소년 디딤센터 설립 등의 사업비 확보 방안을 공유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조기

착공, 동물케어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구했다.

정 시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서 국가예산 확보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며 누가 먼저 발 빠르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며 "내년도 최종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쉬지 않고 발품을 팔아 반영된 사업은 끝까지 사수하고 부족한 예산은 기필코 증액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의회 이한세(다 선거구)·박광일(마 선거구) 의원이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역발전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이한세·박광일 군산시의원 의정봉사상 수상

군산시의회 이한세(다 선거구)·박광일(마 선거구) 의원이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 행복정책 및 지역활동 우수의정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한세·박광일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등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한세 의원은 농촌지역 의원으로 조예안 15건, 건의안 2건, 5분 자유발언 등 왕성한 입법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정반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인 포함 촉구 건의문과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특이강우 비 이상도열병 피해 대책마련 촉구, '군산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

박광일 의원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꼼꼼한 예산심사는 물론 조례안 13건, 건의안 2건, 5분 자유발언 등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

박 의원은 군산시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장자도 발전소부지 환원'과 '군산 경제여건 개선과 지속적인 산업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산산업 및 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문뿐 아니라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안' 등 지역경제 살리기시책 추진 및 참신한 정책제안과 소통의 정치 실현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였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국제교육도시 위상 드높여

IAEC 아태네트워크 국제회의 참가... 동네문화카페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운영 사례 발표 통해

군산시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2일 동안 경상북도 안동시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0회 IAEC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 국제회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평생학습의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회의는 IAEC 사무총장인 마리아 가날스(스페인)를 비롯한 전세계 38개국 510여 회원도시 및 비회원도시에서 평생교육전문가 등 약 1,200여 명이 참가했다. 개회식, 상임이사도시회의, 분야별 워크숍, 아태회원도시 지역회의 등이 진행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됐다.

특히 군산시는 일본(오카야마시),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시) 등과 함께 평생교육도시 우수사례 발표도시로 선정됐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군산은 발표회를 가졌으며



군산시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2일동안 경상북도 안동시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0회 IAEC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 국제회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일본과 아르헨티나는 ZOOM을 통해 참가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장영재 교육지원과장은 발표자로 나서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교육도시-군산'이란 주제로 찾

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사업'과 국내 유일 시 지역의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운영 사례를 발표하면서 IAEC 회원도시 관계자들의 주목과 찬사를 받았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북도·군산시, 천년명가 선정 '군산실비빔집'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매년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소상공인 업체를 선정·지원하는 2021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에 군산실비빔집이 최종 선정돼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경영환경에 맞서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전북천년명가'는 성장 잠재력과 전통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 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3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면서 직계가족으로 가업을 승계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서류·현

장 발표평가와 매장의 상태와 서비스 등을 일반인처럼 방문해 평가하는 Mystery Shopper 점검 등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해 선정된다.

시는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9년부터 전북도와 공동으로 예산을 조성해 2019년도 3개(일도당인혜, 삼화식품, 천지주단), 2020년도 1개(한일어구상사), 2021년도 1개 업체(군산실비빔집)가 점포 운영의 합리성과 생산 지속성을 갖춘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선정업체는 전북천년명가 인증 현판



을 통해 신뢰 인지도를 높이고, 경영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멘토링 지도, 특례보증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게 된다.

/군산=고병만 기자

익산시, 한복문화주간 행사 17일까지 개최

익산시는 지역 특색을 담은 한복문화주간 행사를 오는 17일까지 열린다. 11일부터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고백(古百) 한복-백제를 입다'가 주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최로 열리는 2021 한복문화주간은 한복을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개된다.

시는 한복문화주간 행사를 위하여 지역의 여러 단체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왔으나 시민 건강을 위해 참여 인원을 최소화해 운영한다.

지난 9월 참여형 사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한복사진 공모전을 통해 익산에서 촬영한 다양한 한복 관련 사진 작품이 익산역 서부통로에서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전시한다.

또 원광대학교 패션산업디자인학과와 연계해 장롱 속 한복 고쳐 입기를 주제로 백제 문양을 활용한 20여벌의 한복 리폼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일부 작품은 익산역 서부통로에서 11일부터 18일까지 전시된다.

오는 16일과 17일 미륵사에서 한복 문화 발굴 전문가 초청 학술 콘서트와 백제 30대 무왕행차 재현 퍼레이드 등이 펼쳐진다.

/김재훈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